

오늘 이야기

오늘 하루의 일상을 자녀에게 물어봐주세요. 자녀와 부모님을 서로 나눠주세요.

교리 이야기

교리는 성경적인 삶의 원리와 기초를 우리에게 제시해줍니다.
아래 질문과 답을 아이들에게 읽어주시고 아래 그림을 통해 문답을 설명해주세요!

문)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답)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한 분입니다.

(예레미야 32:17-19, 26-27)

17.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18.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19.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옵하시니이다
26. 그대에 여호와와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7.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문답설명

1.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위대한 분이세요.
2.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3.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높여야 해요

우리 이야기

자녀에게 필요한 일 중에 부모님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해주세요

자녀가 평생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나눠보세요.

내마음대로 되지않고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자녀 양육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인정하며 의지하며 기도해보세요

9월 생활미션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며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가족과 플레이콘으로 튼튼한 '믿음의 교회'를 쌓으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다짐하면
미션 완료!

** 미션 수행 후, 부서 담당교역자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 인증해주세요!

주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삶이 우리의 능력을 넘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월요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배당을 넘어 세상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첫 날, 우리가 향하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주일에 들은 말씀처럼 우리의 말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언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화요일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순 행복축제를 지나는 이 기간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이웃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필요한 이웃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함으로 준비하여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수요일

온 땅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오늘도 온 세상 이곳 저곳에서 하나님을 외면해 일어나는 악함과 고통과 죽음으로 눈물 흘리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웃음을 잃어버린 많은 이들이 주님의 구원을 보며 다시 소망을 얻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목요일

사랑의 하나님, 상처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분노로 드러날 때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서로를 자기 자신처럼 여기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남녀노소 모든 이들에게 심겨져 이제 서로를 위해 헌신하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금요일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더 자라고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작품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토요일

놀라우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함께 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해주세요. 새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